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5.11.05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, AI 과학자원 허브 RAISE 시범사업 출범(11.03)

- 유럽연합 집행위와 덴마크 의장국이 주최한 유럽 AI 과학 정상회의에서 ‘유럽 AI 과학자원 허브’ RAISE의 시범사업이 출범
- RAISE(Resource for AI in Science in Europe)’는 AI를 활용한 과학 연구혁신을 지원하는 가상 연구소로, 암 치료 개선, 환경문제 해결, 지진 영향 예측 개선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할 것
- EU 회원국과 민간 부문이 보유한 자원(연산능력, 데이터, 인재, 연구 자금 등)을 통합해 AI 기반 과학 연구를 가속화할 예정

○ EU 집행위, 민간 투자자와 협력해 ‘스케일업 유럽 펀드(Scaleup Europe Fund)’ 추진(10.28)

- ※ 유럽이 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선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됨
- 유럽 내 유망 딥테크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성장자금 공급을 목표로 다수의 민간 투자자와 공동으로 ‘스케일업 유럽 펀드’ 조성 추진
- 투자자들은 집행위 및 유럽투자은행(EIB) 그룹과 협력해 펀드를 설립 하고 자본을 조달할 예정. 또한 해당 펀드로 유럽 전략적 기술 기업들에 대한 성장 자본 및 후기 단계투자에 집중하기로 합의
- 스케일업 유럽 펀드는 민간이 주도하고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시장 기반의 성장 펀드 형태로 운용될 예정

○ Ehler 의원, FP10 및 경쟁력기금 보고관으로 임명(10.28)

- 독일 출신 엘러(Ehler) 의원이 FP10 및 유럽경쟁력기금(ECF)의 유럽의회 협상을 주도할 주요 보고관으로 임명됨. FP10 및 ECF 공동 보고관으로 임명된 것은 집행위가 약속한 두 프로그램 간의 “긴밀한 연계”를 반영한 것
-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가 FP10과 ECF, 유럽연결시설(Connecting Europe Facility)에 대한 입법 논의를 주도할 예정

- (기타) ▲프랑스 경제학자 필리프 티비 교수, “투자자는 혁신을 포용해야 한다”(11.4) ▲독일, 1,800억 유로 규모 ‘하이테크 아젠다(High-Tech Agenda)’출범 (10.30) ▲유럽 농촌 지역, 혁신 격차 해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(10.29)